

김승욱 목사, “축복 가운데 보냄 받기 소망한다”

칼럼 통해 할렐루야교회 청빙 요청 수락 의사 내비쳐

최근 할렐루야교회 김삼복 목사의 후임으로 내정된 남가주 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가 청빙 요청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목사는 6일 '성도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청빙에 뜻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

김 목사는 칼럼에서 “솔직히 저희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았었고, 아직도 다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주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확답에 순종하며 나가자 한다”라며 “여러분을 진정 이해 시켜드릴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머리와 심정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성령님의 터치로 해결해주시기 간절히 간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목사는 “저희의 결단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와 가족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행복했다”라며 “모든 성도님들의 이해와 축복 가운데 보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만큼 제가 남아 도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축한 은혜도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태근 기자)

◎ 국립기념지 지정 통한 프로젝트 무효화 촉구



지난 6일 뉴욕에서 9.11 테러 현장에 메가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Stop Islamization of America

美 그라운드 제로 메가 모스크에 반대 시위

2001년 9.11 테러 현장인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 메가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미국 내 반이슬람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주일이었던 지난 6일 수천 명의 SIOA(Stop Islamization of America) 소속 회원들은 미국 내 이슬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메가 모스크 '콜도바 하우스(Cordoba House)' 건립 예정지인 뉴욕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저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콜도바 하우스는 15층 규모

의 모스크 겸 비무슬림에게도 개방될 체육관,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센터로 계획됐으며, 이슬람측은 건물이 9.11 이후 미국에서 심화된 종교 커뮤니티 간 갈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기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스크를 통해서 “이슬람의 사랑과 평화, 관용의 모습을 알리겠다”는 것도 프로젝트의 주장이다. 프로젝트는 무슬림발전위원회(미국협의회 등) 이슬람 단체들의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 찬성자들은 “모스크를 어디에 짓든 그것은 원하

는 이들의 자유”라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많은 뉴욕 시민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2,976명이 희생된 이 자리에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도외에 맞지 않다”는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미국의 이슬람화를 경계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라운드 제로에 들어설 모스크가 “이슬람 극단주의 승리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이같은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면에 계속



월드컵 기간, 각국 기독교인 인권에도 관심을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월드컵 참여 국가의 기독교인 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월드컵 경기에는 총 32개 국가가 참여하며, 이 가운데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을 비롯해, 알제리와 나이지리아가 오픈도어즈의 세계 기독교 박해국 50위 리스트에 올라 있다.

오픈도어즈는 캠페인을 통해 축구 팬들이 이들 국가들의 경기를 관람 또는 시청하기 전에 박해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기독교

인들에 대한 연대감의 표현으로 2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사형에 처해지는 가장 극악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에는 현

오픈도어즈 새로운 캠페인 시작

재 최소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피해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앙이 박탈됨과 동시에 공개처형되거나, 온 가족이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

다고 많은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알제리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기독교인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올해 초부터 중부 지역에서의 잇따른 기독교인 학살 사태로 현재까지 최소 7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당국의 보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월드컵을 단순히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27년간 고객만족도 1위. 초특급 제주신라호텔 단독계약.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일등회사 명품관광 이주관광!"

1등 여행사, 1등 서비스

최고급 호텔, 최고급 식사, 최고의 가이드

아주는 1년 내내 축제! 아주의 모국관광은 매월 새로운 축제로 모십니다

3월 - 벚꽃축제, 4월 - 함평나비대축제, 5월 - 춘천마임축제, 6월 - 무주반딧불축제, 7월 - 보령머드축제, 8월 - 강진청자문화제, 9월 - 안동국제탈춤축제, 10월 - 남강유등축제

“국빈사용 초특급 제주 신라호텔 2년 연속 단독 계약”
1) 세계리조트호텔연맹 멤버만이 제공가능한 세계 최정성 고품격 명품 서비스
2) 야외 스파 & 자쿠지, 핀란드 사우나, 수영장 및 실내 사우나 무료 제공

한국관광공사 대한항공 공항 리무진 승차권 무료증정

무주 반딧불 축제

The 14th Muju Firefly Festival

6월 12일~20일(일)

2010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반딧불 빛으로 하나되는 세상"
반딧불축제도 참가 하고 남아공월드컵 응원도 함께하세요~
6/17 아르헨티나 vs 대한민국

모국관광

1	서해일주 + 무주반딧불축제	출발: 6/15 4박5일	\$1599
2	서해일주 + 제주 + 무주반딧불축제	출발: 6/15 6박7일	\$1949
3	모국완전일주 + 무주반딧불축제	출발: 6/15 9박10일	\$2299
4	모국전통 + 서울1박(민숙투어) + 무주반딧불축제	출발: 6/15 10박11일	\$2419

제주 특선 3박4일 \$1149, 동해일주+제주 6박7일 \$1449, 동해일주+서울2박 2박 \$1649, 서해/남해일주+제주 6박7일 \$1449

신상품 제주일주 + 골프

www.usajutour.com

이주관광 대표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이주관광입니다!

대표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www.usajutour.com

이주관광 1위

이주관광부: (213) 387.9090 |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 토렌스(310) 217-0770 | 샌디에고(800) 994-1233 | 북경: 8610-6439-2397 |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미주 1.5세들의 한국 목회 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미주 최대 한인교회인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김승욱 담임 목사가 김상복 목사가 시무하는 할렐루야교회로부터의 청빙을 수락하고, 이보다 며칠 앞서서 미주 최대 한인 침례교회이자 북가주 최대 한인교회인 뉴비전교회의 진재혁 담임목사가 이동원 목사가 시무하는 지구촌교회로부터의 청빙을 수락한 일은 미주 한인교계에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놓였음을 실감하게 한다.

한인교계를 뜨거운 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번 사건은 이민 1.5세대 목회자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청빙이란 점, 미주의 대형교회로부터 한국의 더 크고 이름 있는 대형교회로의 목회자 이동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미주에 목회자를 파송해 훈련시킨 후, 다시 한국으로 데려

가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경험이 없는, 미주에서 자라고 목회자가 된 1.5세대 대형교회의 담임으로 청빙하는 경우는 없었다.

먼저 이 사건은 글로벌 시대 미주 한인교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한다. 21세기 이전의 이민 사회는 한국을 완전히 떠난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으며 한국 사회와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했다. 이들이 차세대에 거는 기대도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이전의 이민 사회는 한국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으며 한국 사회와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했다. 이들이 차세대에 거는 기대도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이전의 이민 사회는 한국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으며 한국 사회와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했다. 이들이 차세대에 거는 기대도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었다.

란 명칭에 걸맞지 않게 국제 감각이 무디다는 비판을 내부적으로 받던 한국교회가 세계적 감각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연하면, 한국 기독교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미주 한인 1.5세, 2세 목회자를 필요로

표하던 한인사회는 이미 2세들의 한국 진출이라는 과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인교회도 다민족교회로의 성장은 물론 한국교회로의 진출이라는 블루오션을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의 신세를 많이 졌던 미주 한인교회가 이제 끊임없이 1.5세와 2세 목회자를 개발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할 시대적 소명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필요를 모든 성도가 몸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청빙과정상의 불투명성, 청빙 후 목회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문화적 배려가 없다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양자 간에 큰 상처와 불신, 오해를 낳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와 제대로 된 소통의 방법과 섬김의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미주 차세대들의 한국 진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시대의 소명”일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비판의 여지가 너무 많다.

김승욱, 진재혁 두 목회자의 한국 청빙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의 신세를 많이 졌던 미주 한인교회가 이제 끊임없이 1.5세와 2세 목회자를 개발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할 시대적 소명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필요를 모든 성도가 몸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청빙과정상의 불투명성, 청빙 후 목회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문화적 배려가 없다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양자 간에 큰 상처와 불신, 오해를 낳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와 제대로 된 소통의 방법과 섬김의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미주 차세대들의 한국 진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시대의 소명”일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비판의 여지가 너무 많다.

영어와 국제적 감각 갖춘 인재 선호...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주 한인교회에 ‘한국 선교’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뭘 해도 한국보다는 세련되지 못하고, 한국보다는 성장이 잘 안되는 교회로 평가절하 되던 이민교회들의 위상이 새로워지는 순간이다. 과거 주류사회 진입만을 목

의 논쟁은 이 과제를 대하는 한인교회의 태도가 아직은 익숙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국교회도 ‘영어 잘하는 목사’를 대상으로 청빙했다면 큰 실수다. 영어를 잘하고 세계적 감각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교회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보증수표는

▶ 교회 연합 위한 9개 선언 발표하고 하나됨의 비전 제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을 맞아 영국 현지에서 개최된 2010년 대회가 세계복음화란 공동의 사명의 성취를 위한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의 헌

간 진행된 대화와 논의를 집약함과 동시에 결산하고 있다. ‘공동의 사명’은 21세기 변화된 교회와 세계의 상황 속에서 선교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

의 선교사들이 모였던 것에 비해 적은 수인 300명 지도자가 모였지만, 이번 대회에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세계복음연맹(WEA)과 로잔세계복음화위원회(LCWE),

자 상징인 교회는 다음의 공동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다. △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계획하신 사랑과 선, 정의를 드러내는 일 즉, 복



6일 스코틀랜드교회 어셈블리홀에서 열린 에딘버러 2010년 대회 폐회식. ©edinburgh2010.org

에딘버러 2010, '공동의사명' 확인하며 폐막

신을 촉구하며 막을 내렸다. 6일 폐회와 함께 에딘버러에 모인 300여 명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의 사명(Common Call)' 선언문은 대회 개최 수개월 전부터 주제 연구와 사전 토론에 참여해 온 세계 교회에 의해 준비되어 왔으며, 지난 2일부터 4박5

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서로 다른 교회들 간에 연합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분모를 성경적 근거에서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공동의 사명'은 총 9개의 선언을 통해 하나된 교회에의 비전을 그렸다. 1910년 당시 1,200명

에큐메니칼 진영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물론 오순절교회와 로마 가톨릭, 정교회까지 보다 확대된 교파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의미 있는 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공동의 사명' 요약

음(구원과 죄 사함, 하나님 안에서 의 풍요로운 삶,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의 해방)을 구현하고 전파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부활을 기억하는 가운데 교회 간 진정한 대화와 존중을 도모

하고, 우정과 화해를 추구하며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 △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분

결과 같등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열정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 원문 확인 <http://www.edinburgh2010.org> (순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사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문의) |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험 562-809-7027

■ 시온성중양교회 멕시코 단기선교

멕시코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다



시온성중양교회 단기선교팀을 반갑게 맞이해 준 멕시코인들. © 박상미 기자

구석마다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는 어린이들이나 성경을 정성스럽게 옮겨 쓴 두툼한 노트를 가슴에 품은 청년, 찬양이 나올 때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든 어른들... 단기선교팀은 그저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뿐이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을 다해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이 되어 30배 60배 100의 결실을 거두게 될 날을 소망하며.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 모든 새가 깃들이기를 기대하며.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다”며 “이 작은 선교의 발걸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박 목사는 ‘그들(선교대상)의 문화와 전통을 알아 그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가르치는 Claud Marie 교수(맥코믹 대학)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음으로 다가가 삶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선교활동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미 기자)

동행취재

바야흐로 단기선교의 계절 여름이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인접한 국가들부터 세계 오지의 나라들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단기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하기에 여념 없다.

단기선교...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서 ‘과연...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서...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막 4:26~27)고 했다. 겨자씨가 자라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되듯(막 4:31~32)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막 생명의 씨앗을 뿌린 시온성중양교회(담임 박상규 목사) 멕시코 단기선교팀과 동행했다.

지난 5일 시온성중양교회 단기선교팀(36명)의 선교지는 멕시코 Tijuana시의 Las Palmas란 동네이다. 이곳은 이용모 목사(Grace Street Mission Church)

가 8년 여간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선교한 곳으로, 하루 동안 이곳의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다.

Las Palmas 동네의 천막교회 안에는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뜨거운 박수와 반짝이는 눈으로 선교팀을 맞이한 이들은 연신 ‘올라(Hola)’와 ‘그라시아스(Gracias)’를 외치며 먼저 다가와 인사해 주었다.

하루 선교일정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거나 써 온 자들에게 상품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함께 식사한 후 지원물품을 나눠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쪽

월드미션대학 제19회 학위수여식 개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목사) 2009/2010학년도 제19회 학위수여식이 5일 오후 1시에 개최됐다. 월드미션대 임성진 학감의 인도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윤성환 박사의 기도, 이원경 목사(상파울로 동양선교회 담임) 명에 선교학 박사 수여식, 총장 훈화, 졸업생 감사, 헌신의 기도, 교가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동선 총장은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훈화를 전했다.

다. 임 총장은 “이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은 모세와 같이 지성과 인격, 영성을 두려 겸비하여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지도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일꾼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월드미션대는 이번 19회 학위수여식에서 음악학 학사/석사,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등 총 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월드미



졸업생들에게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지재일 기자

션대는 1989년 3월 27일 설립된 이후 19회에 걸쳐 총 4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목회, 선교 등의 사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어릴적 부터 개그맨이 되기까지 과정 간증

개그맨 정종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 기도”



개그맨 정종철

“제가 개그맨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건 기도 때문입니다”

개그맨 정종철이 지난 6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 때문이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아름다운 만남은 영락교회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나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를 위해 개그맨 정종철 씨가 초대됐다.

이날 정종철 씨는 먼저 개그맨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 하나

갔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개그맨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가지는 꿈과는 달리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목회자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외모 탓에 교회 전도사님이 개그맨을 해 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고 그 때부터 개그맨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장하며 저만의 뭔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어 그는 서울로 상경해 KBS 공채로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전했다. “녹음기를 사서 각종 소리를 녹음해 똑같이 흉내를 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며 꿈을 키워갔고 그러던 어느 날 KBS 공채가 있음을 알고 겨우 서류를 접수 했어요. 하지만 전 그날 많은 경쟁자를 뚫고 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기도만 했어요. KBS 공채인데 ‘똥치기 박치기’라는 말도 안 되는 개그 내용을 써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개그맨이 된 건 정말 기도 때문이죠.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서류를 KBS 사장이 보게 됐고, 심사관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써낸 이유를 묻고자 저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개그를 설명한 뒤 2차에 합격했고 이후 3차, 4차까지 무난히 통과했어요.”

끝으로 그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썼음에도 제가 개그맨이 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외모만 조금 다를 뿐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래요”라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간병인 세미나’로 취업의 문 활짝 연다

노인 간병에 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우립교회(담임

오종필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8 시간의 짧은 교육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간병인 자격증과, 양로원 현황 및 노인케어에 대한 정부 혜택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간병인 자격증은 18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어로 된 시험을 치른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은 평생 동안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며, 특히 선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타 부수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갱신이 필요 없다.

강사로는 현재 Christ's Enterprises 라는 비영리 세계선교단체(미 연방 정부 인가)에

봉사하고 있는 자넷 최 박사(Dr. Janet Choi)가 나선다. 최 박사는 목회학 박사로서 다년간 간호사로 일했으며 의료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병원과 양로원을 설립해 운영했

다. 현재 선교단체 활동 외에도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많은 Spanish들에게 간병인 자격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문의: 213-435-1121 (박상미 기자)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
JASENG CENTER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본원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척추건강 123캠페인

'풀러튼 본원'에서 365일 토/일 진료

청소년 자세교정 및 성장·비만 무료상담 받으세요!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본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의 척추전문한방병원
- 한국 자생한방병원 의료원장 역임 의료진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 한 양방재활의학전문의 등10명의 의료진에 의한 365일 양한방통합치료

한양방 통합치료 센터

척추관절센터: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특수클리닉: 턱관절장애, 청소년 측만 및 성장, 골프척추관절클리닉
 웰빙센터: 비만, 불임, 산전산후관리, 여성질환, 만성피로, 보약원
 양방검진센터: 디지털 X-ray, PACS, EMG/NCV, 체지방검사

24시간 전화예약 및 상담 **714-773-7000**

여행자 보험 및 각종보험 취급 - 직장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www.jaseng.co.kr/www.jasengusa.com
 1950 Sunnycrest Drive Ste 2000 Fullerton, CA 92835

마곳간, 기독교문화 정착 위해 미주 공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이들이 저희를 통해 문화 공연이라는 기쁨을 마련하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 공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제작 전문 공연 문화 팩토리마곳간이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해 미주를 방문했다. 마곳간은 6월 2일부터 29일까지 총현선교회, 나성영락교회, 드림교회 등 미주한인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마곳간은 이번 공연에서 6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로 '10초 마다 한번씩 웃게 될 것이다'고 자부하는 '에피소드'와 마술과 같은 특수 효과 나무들의 신나는 탭댄스가 있는 '춤추는 나무' 등 2가지의 작품을 미주한인들에게 선보인다. 에피소드는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실패를 맛보고 자괴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한 여인의 편지를 받은 후 준비하는 설교 내용이 뮤지컬이 되는 작품이다. 춤추는 나무는 요정 세계에서 쫓겨난 요정이 네 명의 형제와 아버지를 독과일 나무와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후 아버지와 형제들이 회개하며 흘린 눈물로 다시 인간이 되는 내용의 작품이다.

'마곳간'이라는 이름이 미주한인교회에선 낯설지만 한국에선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마곳간은 1994년 주빛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수차례의 개명 끝에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됐고 현재 기획재정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메리츠화재의 뮤지컬 제작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사회



뮤지컬 <춤추는 나무>

복지사회에서 인정한 사람나눔 뮤지컬 <춤추는 나무>를 공연하는 등 문화행사를 위한 창작뮤지컬제작과 초청공연 및 새 신자초청행사 기획을 의뢰받아 활동하고 있다.

마곳간이 알려지도록 만든 작품은 옴니버스뮤지컬 '돌아온 탕자'다. 마곳간 이한성 팀장은 "이번 공연을 위해 마곳간은 2월 한차례 미주를 방문했다. 단지 한차례 방문으로 미국의 정서를 다 알 순 없지만 미국의 정서에 맞춰 뮤지컬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온 탕자가 공연되진 않지만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213-248-8578

(이태근 기자)

한인사회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12년



생명의 전화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후 단체 사진 촬영.

생명의 전화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드려

생명의 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12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5일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다윗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황은석 목사(상담 봉사원)의 기도, LA 크리스찬 심어즈의 특별 찬양, 송정명 목사의 설교, 봉사자 감사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전한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는 이사가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메시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며 "생명의 전화가 이민사회 상처 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목사는 "이민

자 가운데 정서적으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언어와 문화적인 부적응, 또한 자녀와 부부 관계 문제 등 극심한 문제를 가진 이들을 위로하여 생명을 살리는 전화 상담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다윗 목사는 "창립 12주년을 맞아 절망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이시며 상처 입은 영혼의 치료사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생명의 전화 선교회관이 세워져 자살예방 및 자살자 유가족 치유센터와 청소년 센터, 노인복지 등 다각적인 사회봉사센터의 역할을 감당해 한인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봉사자 감사장 수여 시간에는 1년 근속 상담봉사원, 10년 근속 상담봉사원을 위한 감사장 및 기념패 수여식이 마련됐다.

LA 생명의 전화는 1998년 6월 박다윗 목사에 의해 개통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생명의 전화 213-480-0691

(지재일 기자)

한국대학생선교회 "가라 세상으로"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는 졸업시즌을 맞아 졸업생 파송의 시간을 가졌다. KCCC USA는 한해 사역을 통해 졸업생 81명을 배출했다. 지난 5월 30일 에너하임 하얏트 호텔에서 드려진 파송예배에는 7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후원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특별히

K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참석했다. 박성민 목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건전하고 즐거운 사역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하나님 열망(Aspiration), 하나님 믿음(Believe in GOD), 하나님께 헌신(Commitment), 실천(Do), 즐

길 줄 아는 인생(Enjoy)이 되라"고 격려했다. 파송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동환 목사는 "하나님은 그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전했다. 이어 졸업생 대표로 UC버바인

트레이시장(4학년) 학생이 간증을 했다. 우울한 가정환경을 맞으며 성장한 그녀는 대학입학 후에도 우울증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녀는 "4영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속적인 성경공부로 숨어 있던 아픔을 치료받게 되었다"며 "무너진 인격과 마음을 캠퍼스 활동을 통해 개발했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이 밖에도 파송예배에서는 '5년 캠퍼스 간사'로 우민경, 유진최, 오혜진, 제니퍼 장 등 4명에게 상을 전달했다.

KCCC USA는 전학생(Transfer) 25명과 더불어 중·고등부 행사 이크루세이드(E-Crusade)에 550명이 참석해 헌신을 다짐했으며, 올 여름 단기선교에도 320명의 학생들이 11개 나라로 파송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단기선교사(STINT)로 7명이 헌신했다.

(박상미 기자)



각 캠퍼스마다 졸업생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 KCCC USA 제공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공산치하의 생활, 또 자유인이 되기까지 등 삶 속에 신앙 여정이 담긴 책 '죽음보다 깊은 은혜'의 출판 감사 예배가 지난 7일 오후 6시 미주성산교회(담임 방동섭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학성 목사의 설교, 서평, 작품

낭송, 축사 및 격려사, 저자 원희천 목사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평을 전한 미주한인기독교문화연구원 박성민 목사는 "죽음보다 깊은 은혜" 출판 감사예배

독교문인협회 문학평론가 최선호 목사는 "요즘은 책의 흥수 시대다. 흥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 정착 읽을 만한 책이 없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 책은 누구나 한번은 읽어봐야 할 필독서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를 삼키지 못했다. 이 책은 오직 사실일 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태근 기자)

인사말을 전한 원희천 목사는 "한국에서 먼저 책이 출판됐는데 출판된 책을 읽은 이가 교회를 찾게 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책을 통해 한 영혼이 찾아지게 되어 감사하고 이 책을 통해 유종의 미가 거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남가주기독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총신디지털

●●●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신대원	신학과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 범교단 응원단 출범, 앨범 내고 12일 제자교회서 응원

‘붉은악마’ NO! 월드컵으로 하나되는 ‘미션코리아’

바이흐로 월드컵의 계절이다. 붉은 물결이 도처에서 넘실거리는 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붉은악마’ 대신 ‘미션코리아’를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응원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발족된 미션코리아(이사장 박종순 목사, 대표회장 정삼지 목사)는 최근 미션코리아 응원단인 ‘천사 응원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응원가를 제작하며 한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부장 이주태 장로는 “깨어 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붉은악마 문화에 젖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한다는 명분으로 악마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는 물론 교회에서까지 열광하였다”며 “국가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

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로는 붉은악마의 명칭에 대해 “청소년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4강에 오를 때 모 외신 기자가 ‘한국선수들의 뛰는 모습이 붉은 악령(Red Furies) 같다’ 하여 유래되었다”며 “그 기자가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롱 섞인 그 말의 결과가 문화민족으로서 스포츠 강국으로 향하는 온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미션코리아는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에 의한 영적 타락현상이라는 판단에서 단숨히 월드컵 응원단을 넘어서 한국 응원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의 정서를 아름답게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응원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에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미션코리아 ‘천사 응원단’이 최근 발족식을 가졌다. 응원단 대표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서 결성됐다.

미션코리아에는 신일교회(이광선 목사),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목사), 대전중앙교회(최병남 목사), 대전중문교회(장경동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00여 교회가 넘게 동참해 범교단적인 운동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강원 FC 최순호 감독, 가수 노사연 씨,

임동진 목사, 개그맨 정종철 씨 등 크리스천 스포츠인, 연예인들과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더했다. 한국교회 최초 공식 월드컵 응원 앨범 제작

이들은 먼저 붉은악마 응원단을 능가하는 열정과 기획력을 갖춘 응원단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부산에서 전용대 목사 및 CCM 가수들과 함께 미션코리아 응원단 출범식을 가졌으며 부산 부활절 연합기도회에서는 5천여 개의 미션코리아 신문과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내 기독교 최초로 월드컵 응원 공식 앨범을 출시해 관심을 모았다. ‘미션코리아’를 타이틀 곡으로 총 4곡을 수록한 이번 앨범에는 찬양사역만 30년을 넘게 해 온 전용대 목사를 비롯해 7년 만에 국내에 돌아온 김승희 씨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CCM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송경호 기자)

사설

북한 내에서 순수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첫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애초부터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전제로 하고 세워졌다.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가 이를 위한 모금에 동참했고, 정확한 금액은 밝혀진 바 없으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계가 평양과기대의 운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과기대측은 모금에 있어서는 세계 각지를 누비는 것도 불사하면서도, 정작 예산 집행과정과 비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거시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대로 평양과기대는 지난해 9월 준공식을 마쳤으나 올 4월로 예정된 개교는 미뤄졌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

은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만행으로 밝혀진 이후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고 개성공단마저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평양과기대 또한 더욱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현실

평양과기대를 어찌 할 것인가

을 너무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외면한 데에서 기인한다. 평양과기대의 설립 모티브가 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연변과기대다. 연변과기대를 통해 중국의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선교에 이바지했듯, 같은 공산권인 평양에서도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상황

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중국은 국제적 지위와 외자유치를 매우 중요시하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제적 상식은 통하는 국가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천안함 사태와 각종 남북교류에서 수 차례 확인했듯 상식과는 거리가 먼 나라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그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은 당초 학사 운영에 대해서 김총장과 북한 교육성이 임명한 북한측 총장이 공동으로 50년간 운영하나, 학교측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교수임명권과 연구개발센터 등 산학협동단지

의 조성 운영권을 모두 김총장에게 부여해 북한 당국이 학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원칙’이란 공수표에 불과했다거나, 아니면 김 총장이 북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해도 평양과기대가 남북관계나 북한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저 감상적 목표에 불과했음이 확인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평양과기대측의 책임있는 해명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평양과기대측은 지금이라도 학교의 현 상황과 예산의 사용 내역에 대해 가감없이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규학 직무대행측

“6.3총회는 불법이며 분열 모략”

전현직 감독들이 6월 3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제28회 총회’에 대해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측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일 감리교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이 총회가 “안산1대학(2008. 10. 30)과 임마누엘교회(2009. 4. 9)에서 열린 불법집회처럼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117조, 총회의 소집)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전직 감독을 지낸 21명의 목사와 현직 7명의 감독에 의한 총회를 병치한 모임은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총대를 기망하여 모인 것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그는 “6.3 불법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당당하게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른바 6.3불법총회를 통해 시도하려는 탈법적인 행위들(장정개정, 재선거조치, 가짜 직무대행, 분부점거 등 불법일체)은 감리회를 분열시키는 모략이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재선거를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폴리)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213-248-9297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365일 매일 3회 집회가 있는
L.A 대한민국 기도원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 새벽 5시 30분 /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장소 : 2716 Ellendale Pl., LA, 90007
* 차량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23-734-4599 / 213-725-3007
* 각 분야 봉사자 및 악기 연주자, 사명자들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오늘, 직언 좀 하겠다” 던 이찬수 목사가 말한 ‘예배’

제24회 전국목회자세미나 강연자로 나서

작은 채구, 아직은 검은 머릿칼에 힘이 솟은 중년의 목사가 강단에 오른다. 말에서도 소년의 감성 같은 것이 묻어난다. 좌중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 글썽, 그것도 아니다. 대뜸 하는 말이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자주 모여들더라”였다. 여기, 분당 한신교회(담임 이운재 목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던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전국목회자세미나는 작은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다. 아니, 그들에게 지금 이 목사, 부흥을 너무 쉽게 말한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무엇이 부흥입니까?” 그는 이렇게 다시 물었다. 그러곤 “교인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라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걸 느꼈는지 “너야 교인들 많이 모이니 까 그런 말 하지” 하고 생각하시죠?

리는 말로 청중들의 마음을 읽었다. 적어도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청중들도 비로소 그에게 좀 더 집중했다. “그렇지만 이젠 정말 제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기와 숫자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건 숫자에 속고 사이즈에 속아서 그래요. 대형교회 목회하면 영적으로도 거인입니까? 작은교회 목회하면 난쟁이입니까? 교회 좀 크다고 목에 힘들어 가고...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본색이 드러난다. 단어 사용에도 거침이 없다. 처음의 그 ‘다소곳함’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회개 없이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은 없다”고 외치는 이 목사의 기세가 이번에는 청중들에게 쏟아졌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교회 목회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 끌어들여 모으는게 부흥이라면 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좀 더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 쓰지. 안 그래요?” 침묵이 흐른다. 간간이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혼잣말로 ‘아멘’ 하는 이도 있다. 뭔가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 같았다. 교인들이 정말 미워 죽겠다고 하질 않나, 병 고칠 능력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아예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심지어 안식년 때 미국엘 갔는데 주말날 예배 드리러 가기가 귀찮았다는 말까지 했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 “오늘, 직언 좀 하겠다”는 게 괜한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 김 집사, 목회 웨방만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중등부 학생들 좀 끝까지 품게 해달라고. 내겐 병고칠 만



전국목회자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이찬수 목사. © 김진영 기자

한 능력이 없으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가 솔직했던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함이였다. 그리고 예배에 가기 귀찮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 목사 시키셨나봐요. 목사 안 되면 예배 안 나갈까봐.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꿈보다 해몽이다. 이후에도 이 목사는 많은 것들을 토해냈다. 그래도 이런 것쯤, 여느 집회에게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 아닌가. 이날, 이 목사의 강연

이 특별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 강연이 끝을 향했을 때, 그가 “마지막”이라며 한 마디를 덧붙인다. “뮤지컬이나 음악회를 보러 가면 항상 같은 대목에서 전 눈물을 흘립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공연에 갔다가 환상을 본 게 있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의 말이 다소곳해진다. 팽팽하던 분위기가 수그러진 후였다. 그가 말을 잇는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공연자들을 격려하는 커튼콜이

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객석에서 예수님이 박수를 치고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한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를 두고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목사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조용했다. 군데 군데서 어깨를 뽐짝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듬있는 한 목사의 아버지에게서 그들은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을 격려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비록 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절 통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힘찬 ‘아멘’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며 강연을 끝냈다. (김진영 기자)

강원용 목사, “불자(佛者)도 구원 받나” 질문에...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는 3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백양관 강당에서 ‘세 명의 거인들, 강원용 목사,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원용 목사는 지난 1965년 6대 종단이 참여해 출범한 ‘종교간의 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며 종교간 대화에 평생 바친 인물이다. 소위 말해 ‘진보’ 성향의 목사였고 일각에서는 그를 ‘종교 혼합주의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창해온 종교간 대화프로그램

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했는데, 여전히 WCC를 반기지 않는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 강 목사는 누군가에게 ‘거인’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단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걸까. 정말 어느 종교나 기독교와 같은 구원이 있다고 보면서 타종교인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을까. 강 목사를 이어 경동교회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는 생전 강 목사가 남긴 책 ‘믿는 나 믿을 없는 나’와 ‘열린 종교와 닫힌 종교’(이상 웅진출판)에서 강 목사의 글을 발췌해 그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설명했다. 먼저 구원에 관한 강 목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성실하게 믿지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자기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런 주장이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것인지, 다른 종교를 열린 자

세로 대하는지에 있다.” 이처럼 강 목사에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다고 박 목사는 강조했다. 강 목사의 이러한 정체성은 또한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종교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없다면 대화란 필요하지 않다. 다 합해 버리면 그만이다. 오늘날 불당에 가서 법회를 하고, 내일은 교회에 가고, 또 모

도(Cosmic Christ)에 대한 강 목사의 생전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강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고백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주적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떤 종교나 교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강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전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신문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 때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구원을 얻고 해당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박종화 목사가故 강원용 목사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박 목사, 변진홍 교수, 현장 스님. 맨 왼쪽은 이날 총괄질문자로 나선 고진하 시인. © 김진영 기자

박종화 목사, 고인이 본 ‘이웃종교’ 논해

“레는 다른 데 가면 되는 것이지만 아무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어물어물한 태도를 지니선 안 된다.” 박 목사는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강 목사의 생전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강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고백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주적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떤 종교나 교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강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전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신문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 때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구원을 얻고 해당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김진영 기자)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박세록 선교사, 북한이 사는 길은 복음!

벨류사랑의교회서 선교보고 간증집회 열어



벨류사랑의교회에서 간증하는 박세록 선교사©Brian Kim

벨류사랑의교회(담임 조영훈 목사)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샘 의료복지재단 대표 박세록 선교사를 초청해 '영성으로 하는 선교'란 주제로 선교보고 간증집회를 열었다.

박 선교사는 영성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교에 대한

서도 평안할 것과 받은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 성령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 선교사는 "영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선교사는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들을 애도하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사는 길은 복

음"이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것처럼, 북한 동족들이 고통에서 풀려나고 구원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선교사는 중국 국경 인근에서 진행되는 샘의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사랑의 영양버터 공급과 함께 현재 국경 근처 두개의 병원에서 100여개의 중국 처소교회를 도우며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브라이언 기자>



이번 대회에는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사진 앞쪽에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번 대회의 1등을 차지한 올리버심군이다.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 새예배당 이전, 감격

이중직 목사, '50일만에 예배당 옮겨.. 하나님의 도우심'

이중직 목사(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는 5월 30일에 새로 이전한 예배당에서 '초막의 감격'(느헤미야 8:13-18)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중직 목사는 "교회 이사가 무사히 마쳤다. 입당감사예배는 7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설계중이다. 페인트작업, 루핑작업이 끝나면 입당예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직 목사는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에 와서 4년반이나서 예배당연계 되어 기쁘다"며 "작년 12월부터 사역센터입주를 준비하면서 바빴다. 믿지않는 커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 전경

뮤니티에 도전과 영향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4월 11일에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과 예배당 건물을 처음 본지 50일 만에 예배

를 드리게 됐다. 오늘 오기까지 하루하루가 숨가쁘다"며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이중직 목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감격을 경험한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대로 초막을 지은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처소를 소망하는 감격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은 함께 37년만에 새로 이전한 예배당에서 방문하신 손님들과 함께 서로 축하해주며 자체예배당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누렸다.

<임형진 기자>

제일KUMC, "사랑" 안고 "달리기"

걷기 및 달리기 대회로 지역 사회 섬긴다

벨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고 달렸다. 교회 산하 구제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5킬로미터 달리기 및 걷기 대회"에는 어린이부터 장로, 권사까지 150명 성도들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대회 당일인 6일 사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대회가 열리는 월링의 포레스트리저브 댐 #1에도 대회가 시작되는 오후 3시 직전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대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열기 덕분에 대회 직전에 비가 그쳤다. 출발 신호가 떨어

면서 뛰어나갔고 그 뒤를 걷기 선수들이 이어 갔다. 걷기 선수들 중에는 김광태 담임목사도 함께 있었다.

선수들이 달려 나간 후, 대회를 주최한 구제위원회를 만났다. 위원장 김혜순 권사는 "불경기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 아주 큰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자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1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김 권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바울처럼 성령의 부름 받아 주님의 일 하라

남침례회에서 한인 목사 3명이 탄생했다. 6일 미주남침례회 한인일리노이협의회 주최로 열린 목사안수예배에서 두란노침례교회 임태영, 정흥순 전도

사, 새안디옥침례교회 정병윤 전도사가 목사로서 안수받았다.

목사 임직자들은 지난 4월 18일 협의회 시취 위원 8명으로 부터 목사 자격을 심사받았으며

목사 임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받아 최종 목사로 안수받게 됐다. 이날 두란노침례

SBC 한인 목회자 3명 안수 예배

교회에서 열린 안수예배에는 3명 목회자의 임직을 축하하며 2백명에 가까운 관객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도 30여명이 참석해 직접 안수

하며 자리를 빛냈다. 협의회장 김광섭 목사(삼버그침례교회)는 행 13:1-4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는 장면을 주

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자들이었으며 따로 세워진, 구별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여기 축하를 위해 모인 분들도 안수 받는 분들을 힘써 도우며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증인과 목격자가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임태영 목사는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M.Div., 트리니티신학교에서 Th.M. 학위를 마쳤다. 정흥순 목사는 UIC를 졸업하고 무디신학교에서 M.Div.를 마쳤다. 정병윤 목사는 대전침례신학대에서 M.Div.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조근일 사모, 임태영 목사, 정병윤 목사, 김선녀 사모, 정흥순 목사, 정수미 사모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교협·한인사회, 국가 '평화안보' 위해 합심기도

7일 국가를 위한 기도회 새교회에서 열려

한국의 평화와 번영,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7일 열렸다.

오전 10시 30분, 아틀란타 새교회(담임 심수영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한인 목회자들은 물론, 은종국 한인회장, 이재광 조지아대한체육회장, 신현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이상용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간사, 문대용 재향군인회 회장, 이국자 한인회 부회장 등이 총 30여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장석민 목사는 "조국을 위한 기도(단 6:10~25~28)"라는 주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위기시대에 살았던 의인 다니엘의 믿음을 보자"라며 "현재 우리의 자리는 다니엘처럼 포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던 국가적 위기 때 다니엘이 가졌던 야웨 신앙을 본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조국을 향해 머리를 들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성직 무질서, 혼란과 타락,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배금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인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자, 또 미국이 초기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기도회 시간을 통해 간구하자"고 도전했다.

이어진 기도회 시간에는 남궁전 목사(교회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가 "미국의 신앙 회복과 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해" 김성구 목사(선교분과위원장)가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을 위해" 이재선 목사(기독교분과위원장)가 "한국의 도덕과 윤리회복을 위해" 백신호 목사(에틀랜타목사회회장)가 "에틀랜타 교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남궁전 목사는 "미국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초삼은 나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중보했으며, 한국을 위해 기도한 김성구 목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신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현충일과 6.25 기념일이 겹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열린 국가를 위한 기도회는 천안함 사태 등 국가 안보 위기상황을 맞은 한국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국을 중보 하기 위해 열렸다.

기도회는 에틀랜타교회협의회(회장 장석민 목사)가 주최하고 에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백신호 목사), 한인회(회장 은종국) 등에서 후원했다.

(권나라 기자)



KCC, 7월 13-14일 워싱턴서 햇불대회



KCC 워싱턴 햇불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6월 7일 필그림교회에서 열렸다.

한미교계대표자 및 인권 운동가 대거 참여 북한실상 고발

탈북자 구출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미주는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도운동을 펼쳐온 KCC(미주한인교회연합)가 7월 13일과 14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와 기도 모임을 갖는다.

워싱턴 햇불대회는 13일 오후 2시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4시 30분 백악관 후문이나 중국대사관 앞

기도회, 7시30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회에는 샌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14일 정오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시위를 개최하며 오후 2시30분부터 연방 상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

상하의원 방문시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전역에서 인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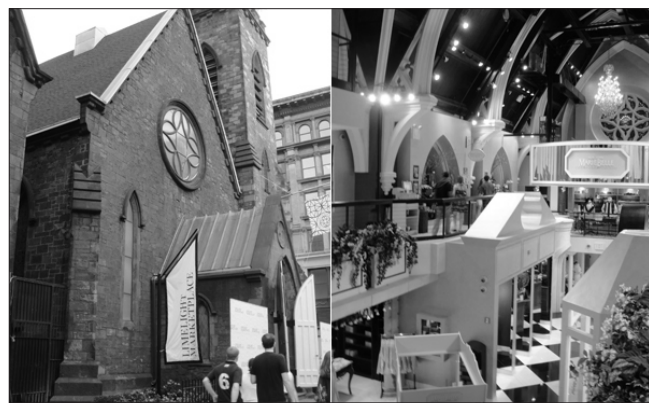
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5명씩 그룹을 지어 목회자들과 함께 탈북 고아입양법안 통과를 호소하게 된다. 오후 7시30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리는 햇불기도회에는 탈북자의 참상을 그린 영화 '크로싱'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배우 차인표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한미 교계 대표자 및 인권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

해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종교와 인권의 자유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한국 교계 대표단과 해외 한인 교회 대표단, 미 주류교회 대표단, 국제 인권 NGO 대표단, 평신도 대표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김 일성대학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김지우 탈북여류시인, 조성래 팩스 코리아나 대표 등이 연설자로 초청됐다. KCC는 "북한은 2008년 대기근과 2009년 화폐 개혁의 실패,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급변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독재정권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햇불대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선교가 가능하고 명목상의 교회가 아닌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관심을 호소했다. (조요한 기자)

교회, 시장이 되다

영혼을 살리던 성전이 시장이 됐다. 19세기를 대표하던 처저 오브 홀리 커뮤니티 라임라이트 몰로 재단장했다. 맨하탄 20가와 6가에 위치한 그곳은 1844년 주춧돌이 세워진 후 1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영혼의 쉼터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줄어드는 성도 수는 교



건물 내외부는 교회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회 유지를 어렵게 했다.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 기관인 오디세이 인스티튜트에 팔린 후 교회는 1983년 클럽 '라임라이트'로 전략했다. 클럽 내 약물 사용과 거래 등으로 주변 경찰들에게 표적 대상이었던 라임라이트 클럽은 2001년 문을 닫고 2007년까지 다른 클럽들이 운영되어 왔다. 이 자리는 1천 5백만불 가량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올 봄 쇼핑몰로 재단장했다. (윤주이 기자)

오케스트라 통한 하나됨으로 선교의 장 마련

성광 청소년 오케스트라 "Mission Concert" 열려

성광 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 민진식)가 지난 6월 저녁 성광교회 본당에서 아름다운 연주회를 열고, 티켓 수익금 전액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버지니아 포츠머스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액 전달했다.

지난 해 10월에 창단된 성광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총 35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사랑나눔축제, 베들레헴 나잇 등에서 연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단기선교를 떠나는 청소년 단원들을 지원하는 무대였기에 더욱 뜻깊었다.

지휘자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현재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교육학(1학년)을 전공중인 민진식 군이었다. 민 지휘자는 "미국에 와보니 같은 교회 청소년들인데도 한어권과 영어권이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로 하나될 수 있는 공동분모를 찾아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하

게 됐으며, 청소년 담당 선생님들과 협력해 창단까지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단한 지 1년도 안됐지만 갈수록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어권 청소년들과 영어권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기선교를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 형식으로 이번

연주회를 열게 된 것도 그 열매다.

민 지휘자는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지휘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지휘를 다시 공부하고 있다. 아이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바빠서, 첼로 등 재능이 있으신 성도분들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주곡 또한 설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곡들만 선정하고 있다.

임응우 목사는 "선교지향적인 전통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요한기자)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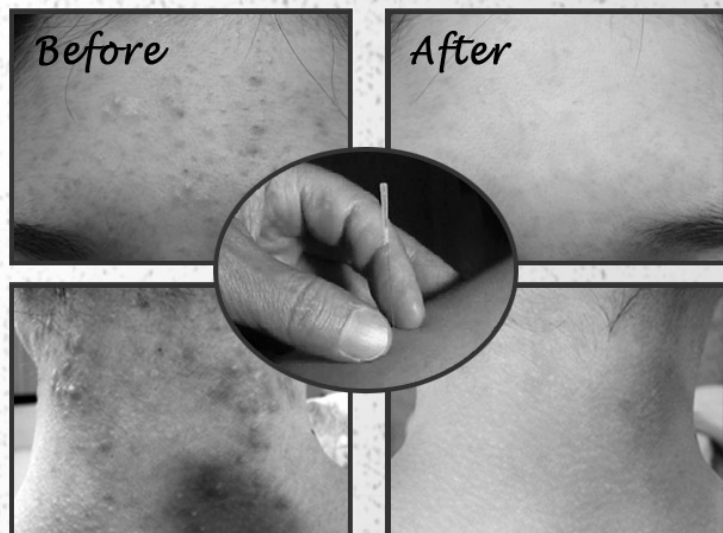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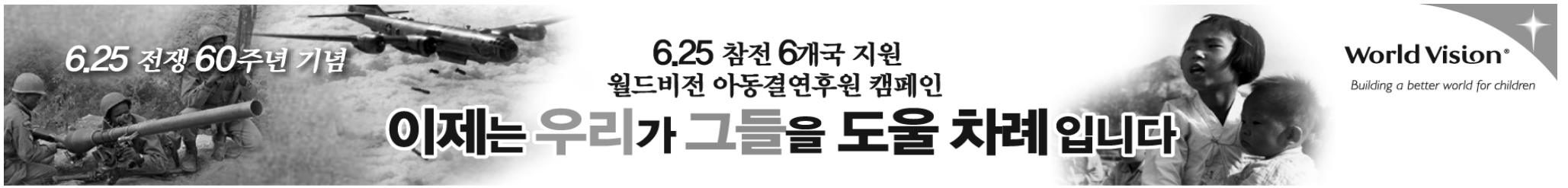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el. 213-380-0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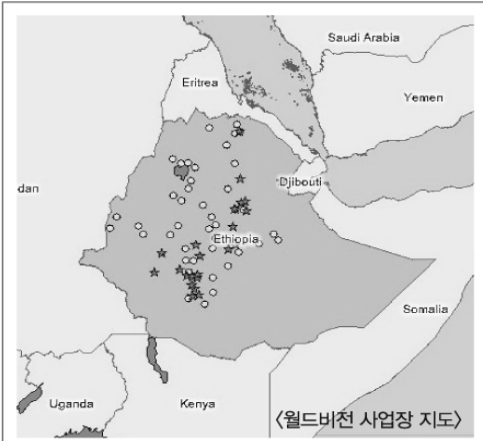
6.25 전쟁 60주년 기념

6.25 참전 6개국 지원
월드비전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6.25 참전 6개국, 현재 그들의 삶과 월드비전 사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최대 규모, 대대급 전투 부대 파병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난 Menelik 1세에 건국된 나라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최근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토지 황폐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총 인구의 38%가 하루 \$1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 가고 있으며 AIDS로 부모를 잃은 고아 수가 575,000명에 이를 정도로 HIV/AIDS의 피해가 심하다. 에티오피아는 연인원 3,518명의 아프리카에서 최대 규모인 대대급 전투 부대를 파병했다.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은 강원도 중동부 전선의 단장의 능선, 펀치볼, 적곡산 전투 등에 참여해 121명이 사망하고 536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당면 과제
▷삼림 벌채와 토지 황폐화로 인한 토양 침식
▷전체 인구의 39%가 하루 \$1달러 미만 소득으로 생활
▷AIDS고아수, 57만 명

월드비전 활동 연혁
▷1971년: 수단과 전쟁에서 피난 온 Nuer인들에게 구호 활동
▷1981년: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로 발생한 대기근 사태에 대규모 구호 식량 및 의약품 지원
▷2000년: 물 부족으로 인한 실명하는 트라코마 질환자에게 개안 수술, 항생제, 세안 도구 제공

현재 월드비전 사업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 개발, 식수 및 공중 위생, 경제 개발
▷65개 지역 개발 사업장, 187,255명 아동 등록, 110만명에게 수혜
▷12,979명의 에티오피아 아동들이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에티오피아	한국
전 체 인 구	81,000,000	48,636,000
평 균 수 명	49 세	79 세
5 세 이하 유아 사망률	123/1,000 명	5/1,000 명
문 맹 률	74%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22%	92%
성인 HIV 감염자	98 만 명	13,000 명
빈곤 계층 비율	39%	4%
일일당 국내 총 생산	1950 년	\$277
	2009 년	\$390
종 교	기독교 60.8%	기독교 26.3%
	이슬람교 32.8%	불교 23.2%
	전통 종교 6.4%	무교 50.5%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육이오-1950
www.wvko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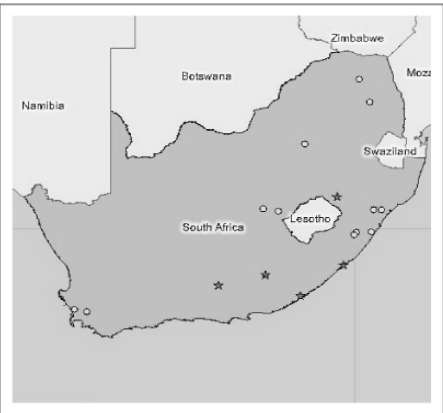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이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보화 고아원 모습.

고아원 설립해 전쟁 고아 돌봄 에티오피아 군인들

유엔 참전국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전투만 벌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다. 1965년 까지 운영되었던 보화 고아원을 설립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파병군 군중 중위였으며, 1952년 동두천 인근에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다. 보화 고아원은 한때, 고아수가 70~8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고아들을 발견하면 군용 더플백에 지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와 돌보았으며, 자신들의 월급으로 부식과 의류 등을 구입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수도(아디스 아바바) 외곽에 6.25 참전용사 마을을 형성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005년 월드비전 비전트립 일행들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참전 용사 마을을 방문해, 지금은 백발이 된 70,80대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미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숨졌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일흔 살을 넘긴 백발의 노인들이었지만 한국인을 맞이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넘쳐 흘렀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 전투 비행 대대 파견, 제공권 장악에 일조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17세기부터 유럽 국가들(하란, 영국)의 긴 식민지 통치를 받아 왔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1900년대 초 보어(Boer) 전쟁을 통해 남 아프리카 유니온으로 독립했고 1990년대 인종차별 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폐했지만, 인종간 갈등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전투 비행 대대를 파견해 6.26 전쟁의 제공권 장악에 일조했다. 연 인원 826명의 공군 병력이 참전해 34명의 사망자와 9명이 포로로 잡히는 희생을 치렀다.



(월드비전 사업장 지도)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전 체 인 구	48,300,000	48,636,000
평 균 수 명	43 세	79 세
5 살 이하 유아 사망률	69/1,000 명	5/1,000 명
문 맹 률	18%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88%	92%
성인 HIV 감염자	660 만 명	13,000 명
빈곤 계층 비율	26%	4%
일일당 국내 총 생산	1950 년	\$2,251
	2009 년	\$5,824
종 교	기독교 79.9%	기독교 26.3%
	기타 18.8%	불교 23.2%
	이슬람교 1.5%	무교 50.5%

당면 과제
▷1806년, 영국 식민 지배 이후, 오랜 피지배 역사로 인한 인종 차별 제도와 인종간 갈등
▷24.2% 실업률, 전체 인구 절반이 빈곤 계층
▷세계 최대 HIV/AIDS감염자(680만 명) 거주,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 평균 수명 20년 감소

월드비전 활동 연혁
▷1965년: 아동 결연 후원 캠페인 시작
▷1980년대: 아동 결연 후원 통한 교육, 영양 공급, 보건 제공
▷1990년대: 대규모 지역 개발 및 식수 개발 사업 착수, 교육 서비스 5만 아동에게 제공

현재 월드비전 사업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 개발, HIV/AIDS, 경제 개발
▷15개 지역 개발 사업장, 48,865명 아동 등록, 30만 명에게 수혜
▷12,979명의 남 아프리카 공화국 아동이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5년 월드비전 비전트립 일행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6.25참전 용사 마을을 방문해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전 트립 일행이 6.25참전 용사 마을 입구 간판 앞에서 있다.

6.25 참전 6개국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기업체는 한국어 안내 전화 1-866-육이오-1950 혹은 www.wvkor.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방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국에서 긴급 구호 및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아동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주광영교회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보입니다. 공원에 어린자녀들과 같이 산책을 간다고 해봅시다. 어린자녀들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부모들은 걷기는 걸어도

눈은 자녀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자동차, 새 자동차, 중고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자동차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동차가 값이 비싸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동차가 보입니다.

사랑하면 전도대상자가 보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랑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시간을 투자 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을 냅니다. 사랑은 투자 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산통치 시대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콘펠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유대인 의사가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

도 '건강함. 일할 수 있음'이라는 도장을 찍어 노동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령을 받고 있었고 만일 이 지령을 어기면 그는 사형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한 죄수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해 보이는 젊은 죄수를 진단하다가 그가 잠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잠암이라 치료의 희망이 있다고 판단한 이 의사는 수용소

의 비밀수칙을 어기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던 날 그는 의사에게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알면서 왜냐를 살리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의사는 조용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

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 저녁 그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한 간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방금 전에 자기를 살린 의사가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청년이 바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좋은 분위기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함

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들려주고 결신하게 하는 말씀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은 기도 할 때입니다. 전도 못한다 하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낙심한 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창조적이 됩니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서 24일까지 터키에서 열린 2010 에베소 연합종교기도회를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밝아본 에베소였지만, 첫 번째와 다른 감회가 있었다. 단순히 역사의 현장을 밟고 오는 의미보다, 그 역사의 재현이라는 사명감이 더욱 깊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견되었다는 에베소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기도동굴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직 세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허락되어 가본 그곳에는 사도바울의

형상도 그려져 있었다. 필막 받았던 성도들이 여기에 숨어서 에베소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생각하니, 밀려오는 몽클함에 잠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아니다'답대히 외쳤던 사도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과 함께 하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가도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사태가 벌어

노서원은 어디 있을까?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나의 눈에는 말씀의 강론과 함께 나타났던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의 기적들로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거

사도행전 19장 현장을 다녀와서

마술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그 책들을 산채만큼 모아 불살랐던 아고라 광장이 내려다 보였다. 아데미신을 믿고 있던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

졌던 에베소 야외대형극장도 한 눈에 들어왔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바울이 3개월간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은 어디 있을까?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는 두란

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에베소 산중턱 기도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도 에베소를 향하여 기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으로교회

도의 손을 들고 간절히 외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강력히 역사하소서.

오른 손에 일곱발을 붙드시오, 일곱 톨대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며,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임하소서.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백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기도하면 다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혹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던데, 안 될 때도 있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를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복일까요? 어떤 것이 더 큰 복이요 은혜입니까? 당연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를 자르는 가위 가 얼마나 무디고 잘 안 드는지. 그래서 저는 '문구점 아저씨들은 다 사기꾼이다. 어떻게 이렇

게 형편없는 가위를 돈을 받고 파는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종이 외에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주 날이 잘 선, 그야말로 종이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얇은 철사 줄도 자를 만큼의 가위를 다른 학용품과 함께 사주

었습니다. 그랬더니 누이가 보고서 이 가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날이 잘 들어서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에야, 저는 초등학교 가위가 왜 무딘지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생들이 사용하는 가위는 그저 종이만 자르면 될 정도여야 안전했던 겁니다. 문방구 아저씨들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저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꼭 알맞은 시간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합당치 않을 때는 안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줄테니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므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피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는 듯이 기도해라. 그렇지만,

일할 때에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실 것처럼 일해라." 기도는 우리의 무책임에 대한 보험증서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많지만 여

러분이 잘 아는 분 중에 조지 몰러 목사가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한 이유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의 재정적 도움도 받지 않고 기도와 믿음만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신자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운 핵심 이유이다."

정말 멋진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조지 몰러를 통해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몰러는 66년 동안 일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운영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도움을 손길들을 조지 몰러에게 붙여 주셨지만, 정작 조지 몰러는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조지 몰러가 보여주었듯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더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트대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얄고지 - 블랙캐년 - 아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년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 파월(크루즈) - 플래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톰스톤 -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나선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개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헤어지는 양상은 가지각색이다. 흔히 한쪽이 강하게 헤어지기를 강요하고 상대방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양쪽이 합

의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챙기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한쪽이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남은 한쪽도 어린 애들을 두고 어디론가 가버린다. 그러나 너무도 쉽게 결혼하고 또한 쉽게 이혼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

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때 이들의 성격에 이상이 생겨 어른이 되어서도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또 부전자전으로 이혼하는 확률도 높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현재 대통령 오바마가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밑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

'성경에 이혼을 허락한 곳이 있는가?'이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라고 권장하지만 이혼을 허락한 곳이 두 곳 있다. 첫째는 반려자가 간음을 했을 때다. 혼외정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마19:1-6) 어떤 학자는

상대를 떠날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신자가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 7:12-15) 안 모 씨는 한국에서 미군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큰 변을 당했다. 남편이 탄 지프차가 전복되면서 육체가 망가지고 뇌도 많이 다쳐서 제대를

더니 이혼해도 죄가 안 되니 마음 놓고 이혼하라고 권면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헤어지지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여러 해 살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했다. 사실 부부에게는 두 길이 있다. 죽을 때 까지 행복을 서로 만 들어 가면서 고락을 같이 하는 길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세대

무도 크다. 그중에서도 자녀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무슨 죄가 있다고 철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주는지 그중의 일부는 아빠 없이 고생하는 엄마 밑에서, 또는 고아원에 보내지기도 하고 극소수는 양자로 보내지고 할머니에게 보내지기도 한다. 일부는 집을 떠나 나쁜 소굴에 들어가 일평생을 망친다. 양부모

며 잘 자라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일도 있지만 그 일은 극소수의 경우이다. 이혼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보면 성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옥 같아 못 살겠다는 것이다. 이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결혼생활은 계속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혼외정사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폭력 등을 꼽는다.

확대해서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자기의 반려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같은 카테고리에 둘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부부간에 신앙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믿지 않는 반려자를 잘 설득해서 신앙생활을 같이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그러나 불신자가 그 문제로 신자가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가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반신을 못 쓰고 정신 착란을 자주 일으켰다. 옆의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자다가 소리도 지르고 부부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결국 안 씨는 시부모와 의논 했더니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좋게 권했다. 그녀가 자신이 나가는 천주교 신부와의 의논했

과 또 다른 길은 어떤 타당한 이유로라도 이혼할 기회는 열려있다. 부부는 동물처럼 짝짓기만을 위함이고 또 기분에 따라서 결혼이나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늘이 맺어준 최고의 선물이기엔 햇빛 좋은 날도 있고 비오는 날도 있으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혼보다는 몇 천배 낫다.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흑백 차별이 매우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은 백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 시온교회라는 흑인교회가 있었는데,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본받아,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발을 씻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는 자기 집의 흑인 여종 마르다 포트윈의 발을 씻겠다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올리버 판사의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직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판사직까지도 박탈당했습니다. 시온 교회의 목회자가 올리버씨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들도 무덤에 갈 때는 한낱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제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올리버 판사는 자신의 신분에게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백인의 윤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으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온 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종종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칼럼



은지연 부동산 브로커

기독일보 컬럼리스트 은지연입니다. 칼럼이 나간 이후에 독자들로부터 숏세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화문의와 이메일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숏세일 딜(Deal)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종사하시고 계신 에이전트나 브로커들도 "그건 불가능해,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건 그 분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거나 숏세일에 대한 전문성 없이 접근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셀러들은 본인들이 직접 숏세일을 진행시키려다 힘들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숏세일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생각

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렵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숏세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팔린 가격보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을 때 종종

니다. 페이먼트를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빚은 은행과 settle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foreclosure로 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집이 차압을 당하게 되면 크레딧에 기록이 7~10년정도 남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일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경제적으로

- 5.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준비하게 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합니다.
6.은행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승인을 해줍니다.
7.바이어가 바이어의 은행에서 용자를 합니다.
8.HUD가 나오면 클로징을 합니다.

숏 세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shortsale 또는 Short Payoff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은행들은 이런 경우에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이 foreclosure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돈과 변호사비등 더 낭비되는 것이 많기 때문

집의 페이먼트 하기가 어려워져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경우 foreclosure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용자도 할 수 있는 세금보고와 수입, 크레딧이 없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집을 팔수도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숏세일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숏세일은 셀러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요?

Underwater라는 말은 은행에 갚아야할 돈이 현재 집 가격보다 더 많을 때를 의미합

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여러 집을 샀다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숏세일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일단 집의 Net Sheet을 작성하여 집이 정말 underwater인지 계산해봅니다.
2.숏세일의 전문성을 가진 에이전트와 연락하여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3.이제 이사갈 준비를 서서히 합니다. 페이먼트 연체된 신 분들은 크레딧이 안좋은 경우가 생기므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좀 더 할 것을 준비해둡니다.
4.현재 시장가에 살 바이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와 같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아니면 모든 게 귀찮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Walk-away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을 차압은 물론 앞으로 용자를 얻는데 있어 7~10년 동안 용자를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용자를 못 얻는다는 것으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 또한 버려진 집들 때문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새롭게 2010년 4월 이후에 나온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Program)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옴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벳산으로의 국경통과사, 실로암 입장료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머와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혜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 항상 정성...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 분당 20¢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견적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트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한대, 휘나,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이아전 1위

에어컨 수리 및 설치에 전문입니다. LIC# 86350

323.25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6월 2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민원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지금 쓰고 계신 집전화와 비교해 보세요!

30일 환불보장

단,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글로벌 플랜]

\$9.99 /월 TAX 포함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글로벌 플러스 플랜]

\$14.99 /월 TAX 포함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기준에 쓰던 전화기와 전화번호 그대로!



전화번호 낮추고,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가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어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가입하시면,

- ☑ '나만의 한국전화번호'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간편한 전화카드 가능'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과다 전화 가입에 의해 요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화 가입 신청에 따라 통화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 요금은 지역, 국가, 시간, 통화 종류, 사용량에 따라 다른 국가 지역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3개월 동안 15% 할인 가격에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 중지는 계약 30일 전 통지합니다. 계약 30일 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30일 전 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800-872-2902 전화기 이용.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50대를 확보하고,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6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 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6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